

# 한국교민은 타종교로... 미국 불교는 급성장

###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제1회 미주연수 성료

#### 9명 비구니 스님들

#### 1월 16일~2월 20일

조계종 국제포교 인재양성 기관인 국제불교학교가 1기 생을 대상으로 미국연수를 실시했다. 국제불교학교는 2년제 비구니 특수교육기관으로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 포교를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불교학교 1기생 9명들은 1월 16일 ~ 2월 20일 36일간 워싱턴DC와 뉴욕 지역의 한국사찰을 비롯한 해외사찰과 타종교의 활동현장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발전 방향과 해외포교에 대한 원력을 다졌다.

이번 해외연수는 1기 학생들이 1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와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는 뉴욕시의 불교 사찰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불교 현주소를 규명하고 향후 한국 스님들이 미국포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기회가 됐다. 또 미국 내에 분포한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소수종교로서 포교활동 전개에 대한 방안도 모색했다.

연수단은 워싱턴DC에서는 한국사(American Zen College, 주지 고성)에서 3주간 머물렀으며 뉴욕에서는 조계종 해외포교 동부지역 교구본사 불광선원(Bulgwang Zen Center, 주지 휘광)에서 2주간 머물렀다.

이번 연수 인솔자를 다녀온 국제포교학교 전임교수 지정 스님의 자문을 받아 미국연수단의 활동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자국 불교세가 현저 사세(寺勢)

한국사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불교사찰들이 미국 교민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교민을 위한 활동이 사찰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법회가 가능한 사찰들은 현지 미국인을 위한 명상수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첫날 방문한 한국사의 경우 일요일마다 한인법회를 열어 교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요일 한인법회는 좌선과 <화엄경> 강의로 진행되는데 참석 신도수가 60~70명 정도로 미주 한국사찰 중에는 상당히 성공한 경우다.

한인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0명 정도의 참석자들 중 대부분이 수년째 주지 스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한국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범주사는 한국불교 양식 보다 현지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범주사는 경내를 서예작품과 불상 등으로 꾸민 화랑 느낌이 많이 났다.

범주사를 비롯한 미주지역의 사찰들은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주말 한글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세대를 지나며 한국말을 전혀 못하거나 서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범주사의 경우에는 지장단을 효행단이라 이름 붙여 한인교포들에게 효사를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보림사는 주말법회에 100명 규모의 신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변에는 종교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불교 교세가 강한 나라일수록 현지교민 중 불자수가 많아 사찰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었다. 사찰의 경제적인 안정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숫자도 훨씬 많았다.

워싱턴 DC의 태국사찰 왓 타이가 그 예이다. 왓 타이는 주말 법회에 보통 1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찾는다. 특별행사 시에는 5000명에서 8000명까지 방문한다.

이 사찰은 주미 태국대사를 비롯해 현지 태국 유력인사들이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의 큰 스님들도 매년 수차례에 걸쳐 왓 타이에서 자국인과 미국인을 위한 정기 수행지도에 나선다. 왓 타이에는 스님 6명과 사미니 1명이 있어 사찰행정, 범호운영 등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생 9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뉴욕 샴발라센터를 방문해 심리학자와 대담을 하고있다.



조계종 해외 교구 동부지역 교구본사 불광선원 일요법회에 연수중인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이 참석했다.



블루클립 사원 스님들과의 만남

### 한국사찰 교민 수 비해 불자 적어 미국인들 건강 위해 사찰 찾아

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점심공양시간 신도들과 수많은 승용차들의 긴 행렬이 아직도 인상이 강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나라일지라도 교민수가 적은 사찰들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찰들은 교민 수에 비해 불자수가 적어 사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가까운 거리에 한국사찰들이 있으면 서로 민폐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한국 스님들은 주변에 한국사찰이 있는지 일정 거리를 두고 사찰을 연다고 한다.

#### 미국인 포교 사찰 운영과 별개

미국인 대상으로 사찰 운영의 중점을 둔다면 재정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 현지에서 본 답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사찰을 찾아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불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박한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을 위해서 사찰을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사찰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해 회비만 겨우 낼뿐 사찰이 잘 운영되는지, 포교를 통해 사세를 왜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다.

한 한국사찰에서는 미국인 회비가 30년 전과 같다는 것에 놀랐다. 회비가 비싸면 미

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인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사찰과 선센터를 제대로 제공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인 중에는 불자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교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인 수행자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는 불교가 전래된 지 80년이 넘었다. 각 선센터에는 초보수행자들도 많았지만 20~30년씩 수행한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중요한 점은 오래된 수행자들이 재가 수행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수단은 이를 보고 향후 미국에서 불교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 티베트·일본·베트남 현지화 으뜸

연수단이 방문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 현지화가 가장 잘 진행된 곳으로는 티베트 불교 사찰과 일본선불교 사찰, 프랑스 플립버리지의 미국 수행센터인 정념수행센터(Mindfulness Practice Center)를 들 수 있다.

이곳들은 사찰운영 전반적인 단계가 이미 미국인들도 구성돼 있을 정도였다. 각기 자국의 문화요소가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미국화가 돼있었다. 티베트·일본·베트남의 문화와 함께 미국 성향을 반영한 승가의 수행성과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동양 문화가 조직적이고 수직적이라면 미국 문화는 부처님 평등사상과 자비실천

### 불교사상과 수평적 미국사상 조화 미국사회에서 종교화합 방향 읽다

가르침과 더욱 맞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실천 수행 소통의 화합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 예는 이들 사찰에서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 실천으로 출·재가자들이 모두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티베트불교의 현지화로 성공적인 예는 미국 전역에 분포돼 있는 샴발라 명상센터(Shambala Meditation Center)를 들 수 있다. 1970대 트롱과 린포체가 설립한 샴발라 명상센터는 미국인에 맞는 불교명상수행 센터다. 1970대 트롱과 린포체가 설립한 샴발라 명상센터는 미국인에 맞는 불교명상수행 센터다. 1970대 트롱과 린포체가 설립한 샴발라 명상센터는 미국인에 맞는 불교명상수행 센터다.

티베트 스님의 정념수행센터도 미국 전역에 분포돼있었는데 정념(mindfulness) 수행은 미국에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으로 평가받아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 다문화 선진국답게 열린 마음 눈길

이들 중 가톨릭 신자로 수행방안으로 불교를 접하고 있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종교는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

현지인들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가톨릭이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는 보수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를 자랑하는 국립카톨릭성당은 평소 다른 종교들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활짝 열어 놓을 정도로 열려있었다. 워싱턴 정념수행센터(Mindfulness Center) 활동도 기독교 교회 건물 안에서 열렸는데 어릴 때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미국인들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톨릭 종립의 명문 조지타운대에서 진행된 불교학강의 토론에서도 학생들의 학구열과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은 연수단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반면 한국교민 사회에서는 자신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코리아 타운 마트에서 마주진 한국어이들이 연수단을 발견하고 반가움인지 곁을 맴돌자 대화를 나누었다. 환히 웃으며 더듬 더듬 건네는 한국말 사이에 아이들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라며 멀쩡잡지 달아내버린다.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불자였어도 대부분 타종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공황에서부터 사회적응을 위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민사회에서 첫인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일정 도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종교를 갈라 보는 인식에 한국사찰들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했다. 대단한 설교나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힘든 이민생활을 다독여주고 관심과 애정 하나에 감명을 받는 것이다. 미국사회, 해외포교현장에서 불교가 시작해야 할 마음가짐, 또 성장했을 때 가져야 할 초심을 일깨웠다.

##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결히 기다리면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임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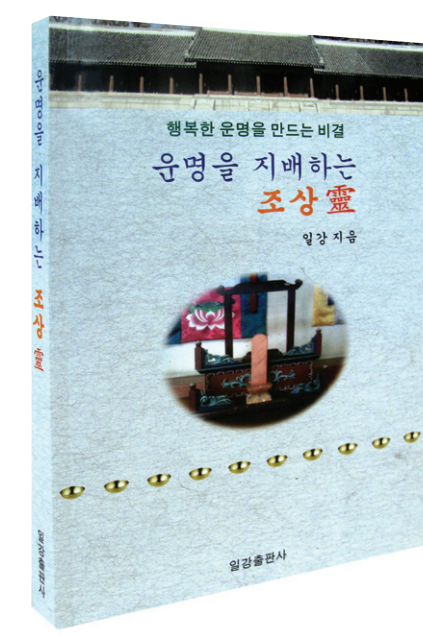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